

검찰이 러시아 음대 가짜박사 학위 매매 사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필리핀 대학의 학위를 위조한 일당을 적발하고 기소하였다. 이는 물론 사문서위조라는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에서 언급되었지만, 이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학문적 자질이 함량 미달임을 드러내는 사안으로서 대학 안팎으로 충격을 주는 일이다.

물론 이런 사기사건이 몇 해 전에도 있었고 심심하면 터지곤 해온 사건인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고리가 짝진 모양이다.

사기범들이야 작심을 하고 저지르는 범죄행위지만, 그런 사기범죄를 있게 만드는 수요자들이 예술품을 하고 학문을 추구한다는 소위 지식인층을 자부하는 군상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또 그런 날조된 문건을 가지고 버젓이 교수 행세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위조된 문서와 인간 자질을 여하히 변별하지 못하고 교수로 채용하는 대학당국의 인사시스템도 문제긴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오히려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임을 강변하거나 소정의 절차를 수행한 만큼 학위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니 이는 너무나도 엇지 않는 태도다. 또한, 이번사태를 대학 당국이 검증



불자 세상보기

최순열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가짜박사와 가짜세상

절차가 복잡하고 미비한 바 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호도로 머뭇머뭇 이러한 범법적인 사슬고리는 단절되기 어렵다.

물론 예술계통의 교수의 자질과 자격은 이론과 전문적 실기 기량을 겸비해야 하긴 하겠지만, 지나치게 형식 요건 중심으로 제한하는 인사 원칙이 그런 범법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볼 문제이다.

요즘 대학마다 교수들의 연구 업적을 오로지 계량적으로 처리하는 강박이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의 부실·날조를 조래하는 한 요인임

도 반성되어야 할 문제제이다.

그러나 예술 계통에 복무하고 있는 교수들 대부분이, 특히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번 사안으로 해서 도매금으로 이들의 자질과 자격이 터무니없이 모독되는 확대 해석을 금물이다.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육식을 가리는 대학 자체 내의 자기검증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차체에 교육부도 외국학위를 검증하는 확인 절차나 조사·심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야한다. 한편으로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기대해볼 일이다.

사법 처리나 시스템 완비도 서둘러야 하지만, 모든 사안은 결국 인간이 문제의 중심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 부처도 있고 마구니도 있는 법이다. 범죄를 저지르든 사기를 당하든 선행을 베풀고 정직을 행하든, 그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무늬인 것이다. 완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삶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수행하는 사람들도 문득 잘못이 보이기도 하는 바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뉘기에 정진하는 계기로 삼자.

인간사에서 최악은 인간의 허욕과 허영에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진면목을 찾을 생각은 아예 없고, 제 분수조차 알지 못하고 거저와 위선으로 마침내 자기파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질서까지 교란시키기 마련이다.

무언가 하려는 발원과 성취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아서 타인과 사회에 불편을 끼치는 부질없는 기회를 만들지 않음도 더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일 수 있다.

창정된 마음은 바로 나 잘났다는 허망한 자신감과 그것에 사로잡힌 신념 구현의 일보다 나보다 더 잘난 남을 찾아보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겸손에서 우러나는 법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주려고 산문을 열기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불과 4년 만에 20배가 넘는 내, 외국인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약 50% 성장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참가자들의 설문조사에서 만족도 또한 높아 이제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대표적 종교 문화 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 종교에 비해 포교에 적극성이 부족한 불교로서는 템플스테이아말로 세계에 한국불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로써 인연 맺어진 내국인들에게 포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참가자들의 연령이 20~30대 등 젊은 연령층이라는 것도 기대감을 높여준다.

그러나 일반의 높아지는 관심과 단순한 참가 인원 증가만으로 장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 공간이라는 사찰의 특수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마음' 문제에 대한 일시적 관심, 토

산사로 가고 싶은 마음

요휴무 등으로 늘어난 레저 욕구 등이 참가인원의 증가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를 한국의 대표적이며 지속적인 이미지로 만들려면 종단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49곳에 이르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이미 참선 예불 공양 등 불교적 신앙의례와 다도를 비롯한 전통 문화체험 등 사찰마다의 특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먼저 일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에는 불교의 진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웰빙'이 '시대어(時代語)'가 되어 있는 요즘,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닌 진정한 웰빙의 삶이 바로 불교적인 삶을 알릴 수 있는 방법 등이다.

부침의 속성을 지닌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내·외국인들이 불교적 삶의 가치를 터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 분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김장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성희룡

반성할 줄 알고, 조심하며 활동하면서, 그 행위가 맑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은 더욱 빛난다. <법구경>

뉴스를 볼 때마다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성추행, 성폭행' 보도. 신문지면과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가 성범죄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지난 2월 27일에는 최의원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 어린 이들을 성추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되고 한 고교단이 여성 재소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자살기도에 이르게 했으며 동료 여교사를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는 구속됐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기자조차 성희롱의 위험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적 괴롭힘에 시달리면서도 말 못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짐작한다"는 동아일보 여기자들의 지적처럼, 과연 최 의원이 저지른 성추행이 조그마한 기업의 남성 상사와 여성 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최근 한 취업포털 스카우트가 직장인 1224명(남성 796명, 여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 응답자 중 62.4%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여성 10명 중 6명은 성희롱을 당한다는 통계자료도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폭행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 걸친 '남성우월주의'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한다. 귀찮다고 한번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재밌자고 한 농담들이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될 수 있다. 평소의 습으로 인해 누군가를 괴롭히는 악업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요즈음이다.

■ 이은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형제 폐지 결의문 채택 환영

지난 3월 22일 조계종 임시중앙총회에서 사형제 폐지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다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총회는 "부처님의 생평존중의 사상을 실천하고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를 결의하고 국회가 관련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형제도는 자신이 지은 잘못을 스스로 참회하여 새롭게 태어날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다음생인 내생까지 이어져서 한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처음부터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주장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마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악인이라고 해서 생명을 함부로 없애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심(慈悲)과 비심(悲心)으로 중생을 측은히 여겨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람을 다시 살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앙총회의 결의를 환영하며, 관계 당국에서도 하루 속히 사형제 폐지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

양경인(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경인방송 사업자선정 신중해야

몇 경인방송(TV)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차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기독교방송이 또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인방송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불교가 못하는 것을 타 종교가 먼저 나서니 배가 아픈 거냐는 식의 좁지 않은 시선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계가 경인방송의 세 주인으로 된다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불자들은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 기독교의 '전파선교관'으로 재구성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전국의 기독교 채널과 불교 채널의 신술적 비교만으로도 불교계가 절대적 열세인데, 국민이 주인인 전파를 특정종교가 독과점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

때문에 금번 경기지역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해 불자들은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이 투명한 원칙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

정을 책임지는 방송위는 단순히 민영방송의 경영논리만 따지지 말고 민방에도 공익의 논리를 앞서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선명(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불자스타들의 기사 반기위

'현대불교' 570호 대중문화면에서 처음으로 연재되기 시작한 '스타와 스님'란이 앞으로도 기다려진다. 특히 첫 회 주인공으로 선정된 추승균 선수의 팬이기에 더욱 관심있게 읽었다. 외국인 선수를 막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랑스러운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자들이 것을 처음 알았다.

특히 좋은 실력과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 팀 분위기를 이끄는 조직력 등을 보여 항상 감탄했었는데, 이번 기사를 읽고 나니 추 선수의 안정적이고 차분한 플레이 스타일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다.

좋아하는 스타와 스님의 관계를 알게 되면 불자들도 더 많은 힘을 얻게 되고, 스타에게 더 큰 응원을 보내지 않을까? 유명인들 중에는 드러내놓고 '신자'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된다는데, 앞으로도 '스타와 스님'을 통해 더 많은 불자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문화계 인사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영호(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이재복 회장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이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단체강의 : 삼성종합화학(주), 국립경향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주), 한솔개발(주) 등 다수

-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아시렵니까?
-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 "너 숨줄줄 어느냐?" 세상에는 숨 줄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아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 음기(사기) 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자기 죽는줄도 모르고 구병식이나 천도제를 많이 지낸 후 병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화주시면 책(약사 나경환 지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天 一 氣 功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현대인의 만성질병은 무게 중심이 무너져서 생긴다. 스스로 골반, 척추를 바로 잡아 무게 중심을 바로 세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